

地域研究의 標本社會로서의 濟州島

張 壽 根*

I. 머리말

제주도청은 1950년대부터 4대차원의 개발로써 제주도 발전의 꿈을 펼쳐온 바가 있었다. 해산물, 목축, 특용작물, 관광자원등이 그것이었다. 그만큼 제주도는 한국내에서는 특수조건들을 갖춘 지역사회이고, 그 후 30년간에도 천지개벽한 만큼의 큰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5대자원으로서의 또 하나의 학술자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주도가 가지는 학술가치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 걸친다. 1959년도에 실시됐던 100명에 가까운 대규모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단의 결성은 그 증좌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조사단은 보고서를 간행하는 결실을 못보았지만, 사실은 이 학술자원들의 추구는 위

* 경기대학교 국문과 교수 겸 박물관장

4대자원 개발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 인식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지니는 표본사회로서의 학술가치는 특히 다음 3조건의 구비에서 생긴다고 할 수가 있다.

첫째는 본토 남단에서 80여마일을 떨어져서 북위 33°어름에 위치하는 섬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주위 400리의 면적을 가진,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섬이라는 점이고, 세째는 그에 알맞는 인구(근래는 40여萬)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특히 첫째 조건은 지상과 해중에 동·식물학 자료를 풍부하게 분포시켜주는 것이겠지만, 한편 둘째 세째 조건들과 더불어 한국문화의 한 지방형과 古型을 온존시켜온 조건들이다. 가령 울릉도는 주민의 지속적인 정착 거주가 없었고, 거제도, 남해도, 진도등도 큰 섬이지만 본토에 각기 근접돼 있어서 독자성을 가진 지역문화를 형성 지속시켜오지 못했다. 제주도가 특히 인문, 사회과학, 나아가서는 자연과학에까지 풍부한 학술가치를 지니게 되는 데에는 이상과 같은 제주도만의 몇가지 특수 구비조건들이 있었던 때문이라 하겠다.

유사한 점은 이웃 오끼나와 섬 문화에도 있어서, 여기에 다년간 일본의 여러 학회와 학자들의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오끼나와 문화에는 중국문화의 색조도 많은 점에 비하면, 제주도는 아주 순수하게 한국문화의 고향, 지방형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문화에서 그 연구가치는 훨씬 더 크다. 그러나 그 연구의 양은 오끼나와의 비교가 안될 만큼 반대로 훨씬 적다.

이러한 제주도 연구는, 제주도가 그리 크지 않고 하나의 표본사회로 볼 수 있는 만큼, 집중적 또는 종합적 연구, 또는 각학문 상호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이 많아질 것이 요망된다. 필자의 경우에서 한 실패만을 든다면, 제주도에 본향당, 해신당들 외에도 본토에서는 그러한 예를 찾기가 어려운 일외당이라고 하는, 질병의 치유를 기원하는 당이 전도에 94개나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大 醫大의 풍토병연구소가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해안 촌락민들의 象皮病 검사 결과 皮内反應 陽性率이 58.6%나 되고, 그 제 2 단계인 극도의 피로, 열, 두통, 4지통, 腰痛, 임파선염, 임파관염, 血尿등을 일으키는 有症者만도 20.5%나 되었다(徐丙奩外, 1965: 67-72). 그 밖에 이 조사사업 關係자들은 식수로 말미암은 이질아메바, 부엌 구조로 인한 눈병, 돼지고기로 인한 條虫症, 기타 소화기 계통 증상, 소아병, 위장병등 각종 풍토병이 제주도에 유난히 많았던 것을 이야기했다.

제주도에는 심 사회다운 특이한 신앙형태들도 있고, 또 그 위치로 말미암은 신앙형태의 古型들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도에 94개나 분포하던 질병 치유 기원의 일회당이라는 특이한 당 형태의 전승은, 이상 자연과학 분야의 조사결과와도 견주어 볼 때 비로소 그 전반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는 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깊고 넓은 제주도의 연구와 이해를 위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보조를 같이해서 진전되고, 또 서로 그 결과가 원활히 교환될 것을 기대한다. 그런 뜻에서 이하, 여기에서는 이 표본사회에 대한 필자들의 일련의 연구 성격과 그 성과의 개황을 이웃 분야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간결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II. 민속학의 경우

여기 몇 사람의 연구에는 무속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신앙의 연구가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연구일 수도 있고, 현대사회적인 연구일 수도 있다. 또 종교는 그 사회 문화 형성의 전반적인 기반일 수도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은 민속학 전분야와도 관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몇몇 연구자들은 본래가 국문학도 출신들이어서 설화, 특히 제주도에 흔한 살아있는 신화인 本풀이를 비롯한 무가와 무속에 힘이 기울어지고 있는 일면

도 있는데 그 조사연구의 결과와 개황은 다음과 같다.

1. 司祭者의 수(1959年)

① 수효: 남자 99명, 여자 128명, 계 227명 (평균연령 51세).

② 입무과정

ㄱ. 세습무 96명 ㄴ. 본인대의 입무 80명

ㄷ. 미상 51명 (張壽根, 1973:67)

이상은 1959년 여름에 이른바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조직되었던 「警信會」의 명단을 입수해서, 면별로 면회장을 찾아서, 일일이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숫자들을 파악했던 중의 골자이다. 제주도 는 일제시대 이래로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남자보다 여자 심방이 적은 특수한 곳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자세한 조사결과로는 역시 여자 무당이 56%로 남자 44%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당시 인구 27萬에 대해서 1,184명에 1명, 1가족 5명으로 쳐서 237호당 1명의 심방 비율이 됐다. 훗날 이 경신회가 해산될 때 秦聖麒氏가 그 명부를 양도받고 「南國의 巫歌」재판본(1968)에 실었는데 여기에는 총수가 375명으로 되어 있었다. 위 227명 외의 146명은 심방으로는 간주하기 어려운 삼승할망들까지가 다시 다 포함된 것 같았다.

肅宗 29년(1703) 李衡祥목사는 무적 400여명을 모두 귀농시키고, 3읍의 淫祠와 佛宇 130여소를 불태웠다고 했으나, 필자가 본 바로는 95%정도의 거의 대부분의 심방들은 평소에는 다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후 우리는 무적 수 조사의 기회를 못가지고 있으나, 1982년 무형 문화재 영등굿 보존회 회장 이중춘씨는 말하기를, 우리 50대 심방들이 다 죽고 나면 과연 제주도 무속은 어찌될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 변화와 수의 격감을 말하고 있었다.

2. 聖所의 分布 - 당의 종류와 수효

- ① 본향당 123 ② 일퇴당 94
- ③ 여드레당 22 ④ 해신당 36
- ⑤ 기타 2 合計 277 (玄容駿, 1963:8)

본향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당으로 마을 공동의 당굿을 하는 곳이다. 큰 당들은 더러 다음과 같은 1년 4회의 당굿 이름을 본풀이에 전승시키고 있으나 현재는 겨우 신과세에 더러 영등굿을 하는 당들이 있을 정도이다.

- ① 正月 14 일경 신과세
- ② 2월 14 일경 영등손맞이
- ③ 7월 14 일경 몰부림제(牛馬增殖祭) 또는 마불림제(神衣淸掃祭)
- ④ 9월 또는 10월 14 일경 추수감사제

일퇴당은 위와 같이 질병의 치유 기원을 하는 당이고, 여드레당은 동남부지방에 분포하는 蛇神 숭배의 당이며, 이들이 더러 본향당을 겸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별적인 기원을 하는 당들이 많다. 해신당은 해안촌에 분포하는 것으로 신주, 어부, 해녀들이 기원하는 당들이다. 이상에서 해신당을 제외하면 모든 당들은 아무래도 30대 이상의 부인들이 주된 신봉자가 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무속적인 당들과는 별도로 포제단(脯祭壇)이라는 것이 전도에 150 개소 정도 분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엄격하게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들만이 완전히 유교식으로 많은 제관들을 선출하고 철저히 형식을 갖추고 하는 마을 공동제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축문만 있고 춤, 노래, 신화들은 전혀 결부되지 않는다.

3. 마을 共同祭儀와 神話

신과세나 영등손맞이등 당곳은 대개 하루, 7~8시간이 걸리는 곳이 된다. 그 이치상의 순서는 ① 신을 청해 들이고 ② 제물을 차려서대접하고 ③ 당신의 본풀이를 부르고 ④ 기원을 하고 ⑤ 점을 치고 ⑥ 노래와 춤으로 신과 인간이 같이 즐기고 ⑦ 신들을 배송하는 절차들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堂神本풀이”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근본을 해석 설명하는 무가’라는 합성명사가 된다. 제주도 속담에 “귀신은 本을 풀면 신나라 만나락하고 生人是 本을 풀면 백년 원수가 진다”는 말이 있다. 신은 초인간적이니까 근본을 풀이하면 찬양하는 결과가 돼서 즐거이 강림한다는 것이고, 사람은 결점이 많으니 욕하는 결과가 돼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① 신을 모셔다가 ② 음식대접을 하고 ③ 칭찬을 하고 ④ 부탁을 드리면 ⑤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점괘에 나타나도록까지 점음 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풀이, 즉 살아있는 神話는 祭儀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의 전체의 기본설명도 되고, 제의의 효과도 올리는 유기적 상관물로서, 스토리를 갖추는 신화로서 형성 전승이 된다. 여기서 제주도 당신들의 本풀이를 구성하는 요소(motif)들을 분석해 보면, ① 대개 남신들은 도내에서 솟아나고, ② 그들은 사냥하고 육식하며 짐승 가죽의 옷을 입고, ③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곳에 가서 당신으로서 座定한다.

그리고 ④ 여신들은 龍王 또는 강남천자국의 따님애기 또는 본토의 고귀한 신분의 애기씨들로서 신비스런 呪物 내지는 농경문화적 성격등을 지니고 입도한다. 그리고 ⑤ 남녀신들은 부부 인연을 맺는다. ⑥ 그리고 남신의 육식, 여신의 米食등 식성으로 생기는 갈등, 별거담들도 간 있다. ⑦ 그 부부신의 아들이 용왕국에, 또는 강남천자국에 가서 무용담을 전개하고 그 따님애기들을 맞아들여서 또 당신으로 座定하는 모티프들도 간간 있다.

앞서 본향당이 123개 있다고 했거니와, 이 중에 70~80개 정도의

당의 당신본풀이들이 혹 2~3개, 혹은 5~6개씩 이상 모티이브들의 연결로 각기 길고 짧은 본풀이들을 형성 전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곧 우리의 주의를 끌던 것은 『高麗史』 「耽羅誌」의 三姓始祖神話도 결국은 몇몇 모티이브의 연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構造는 다 같은 것의 변형들이라는 점이였다.

이제 삼성신화를 구성한 위의 모티이브들을 옛 문헌들과 같이 한자로 기록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삼성신화가 났음을 알 수가 있다. 즉 ① 太初無人物에 三神人이 從地峯出하고 ② 遊獵 皮衣 肉食한데 ③ 一日은 木匣浮至東海濱하야 開之하니 三處女及 諸狗 五穀種이 出現하나라. ④ 三人이 次年次로 分娶之하고 ⑤ 射矢卜地하니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라.

이상은 『高麗史』의 三姓神話의 골자를 약기한 것이거니와, 이것은 위의 ⑥, ⑦같은 모티이브의 번거로운 것은 제외하고 형성된 시조신화임을 곧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신화를 비롯한 문헌상의 우리 시조신화들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관점을 얻을 수가 있다. 즉 고주몽신화나 석탈해신화같은 이야기들도 이런 성격의 신이 아니었을까? 단군신화의 단군도 六堂처럼 祭司長, 즉 實在人物이었던 巫王으로 보기보다는, 그러한 巫王이나 祭司團들이 제의를 지내던 고을나나 양을나들 같은 신앙적 존재인 非實在의 신으로 봐야 하리라는 점들이다 (張壽根, 1960).

4. 개별가정 제의와 신화들

제주도의 곳곳 마을 공동체가 지내는 [당굿], 개별적인 차정굿으로 2대분할 수가 있다. 이 때 당굿은 그 당신본풀이와 더불어 일정한 시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사제 신방인 당맨신방에 의해서 집행되고 가창된다. 그리고 가정굿은 환자나 굿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로 수시

로, 아무 신방에 의해서나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곳은 큰 곳과 작은 곳들로 규모도 종류도 매우 다양해진다.

또 여기에 따르는 많은 신들의 본풀이도 다양해진다. 農神 세경할망본풀이, 叢神할망본풀이, 巫祖神 초공본풀이 등등. 이런 일반 가정곳에서 어느 신방에 의해서도 가창되는 본풀이들을 우리 연구자들은 일반신본풀이로 묶어서 명명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본풀이들이 대개 단편들이던데 비해서 이 일반신본풀이들은 대개 장편들이다. 위 세경본풀이 같은 것은 그 가창이 3,4시간씩 걸리는 대장편인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는 늘 제주도 심방들의 초인적인 暗誦 능력에 경탄을 금하지 못한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일반신본풀이들 중에도 조선시대 초기 刊經都監에서 가행했던 釋譜詳節 속의, 예컨대 安樂國太子經과 같은 줄거리를 부르고 있었던 점이다. 그것이 二공본풀이인데, 이것은 이조시대 불교소설인 “안락국전” 과도 같은 내용이다. 또 중국 唐代 말기에 형성됐다고 하는 불교의 講唱文學인 李太宗八冥記와 같은 내용도 세민황제본풀이라는 이름으로 가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도 이조시대 불교소설인 “당태종전” 과 같은 내용이다.

또 중국 元, 明代에 유행했다는 역시 講唱文學 작품의 가장 인기있고 대표적이었던 梁山伯寶卷도 세경할망본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것도 이조시대 소설 “양산백전” 과 같은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일반신본풀이들이 가지는 뿌리 깊은 불교문학과와의 밀접한 관련성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중국의 講唱文學이란 본래 어려운 불경, 교리들을 민중 포교를 위해서 재미있고, 신앙심을 유발하게, 쉽게 엮어서 唄으로 부르던 문학이다. 그것은 이미 3,4세기부터 6,7세기 唐, 宋代에는 전성했고, 근래는 중국문학사를 고쳐써야 할만큼 中國俗文 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다시 근래에 와서는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문학형태의 흐름이었다.

같은 불교 보급문예는 일본에서도 唱導文藝라는 이름으로 7,8세기 奈良시대부터 平安時代に 전성했다. 창도문예 없이는 불교 보급이란 생각할 수 없고, 또 이 창도문예는 일본에서도 중국과 같이 그후 국민 문예의 기반 모태 역할을 크게 해왔다고 한다. 중국의 講唱文學도 일본의 唱導文藝도 唄으로 된 불교문학들이었다.

한국에서는 재래 唄의 문학으로서는 한중일 3국의 불교관계가 그렇게 밀접했는데도 17세기 이후의 판소리나, 그후의 唱劇唄에는 인식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그러한 강창문학 작품들을 일반 신본풀이들로서 지금도 巫歌로 부르고 있다는 매우 이상한 문제에 부딪치는 한 결과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온 것인가? 이것은 물론 기록없는 민속 전승이니 알길이 없다.

또 일반신본풀이들은 전부가 이런 강창문학 관련물인지 아닌지도 지금은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나 양의 비율에서도 강창문학적인 것들이 적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 불교문학, 무속문학, 그 양자의 관계, 창 의 문학, 소설사의 연구등에 방대하게 큰 문제들을 복잡하게 던져주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제한된 이 지면에서는 이상 개황만 소개하는데서 그치기로 한다.

무가 전체는 말고, 본풀이들에도 위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들 이외에, 또 祖上神 本풀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부를 수 있는 종류들이 있다. 이것은 가정곳에서 그 가정에 출입이 있고, 그 가정의 신앙적인 내력을 아는 심방들이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심방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무가가 아니다.

그 조상신이라는 것도 반드시 객관성있는 血緣的인 조상이 아니다. 蛇神도 있고 巫女死靈도 있으며, 또 父系로도, 女系로도 전승되는 것들이 있어서, 알쏭달쏭한 古型들이 많다. 아직은 은밀한 전승물이라 채록 자료도 많지 않은데, 이것도 단편들이지만, 제주도내 전승의 전체를 채록해 낸다면 몇 백편은 능히 될 것이며 적지않은 분량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Ⅲ. 맺는말

지금까지 제주도 무속의 개황 소개가 본풀이들에 치우친 언급이 되어왔으나, 여기서 다시 제주도 무속 연구에서 느껴졌던 점 몇가지를 조목별로 정리 나열하고 마치기로 하겠다.

1. 최근의 근대화 물결, 미신타파등으로 무속면에는 많은 쇠퇴와 변질이 초래되어서 1980년에는 영등굿이 하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있었다. 이 영등굿 끝에 현재는 모조 짚배에 제물을 실어서 띄워보내는 송신의례가 있는데, 이것이 2~30년전까지는 각자 자기 때배에 싣고 때배를 짓는 경주로 이루어졌다. 이 경주에서 장원을 하면 한해 풍어의 길조라 해서 자축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풍어 기원의 競漕大會는 해변 민속으로서 다른 나라들에는 간간이 있다. 우리 駕洛國의 김수로왕 허왕후 神婚에 연유한다는 戲樂思慕之事로서 문헌상에도 그런 민속 전승의 기록은 있었으나 다 없어졌다. 이제 제주도만이라도 이러한 활기찬 보오트·레이스 민속은 다시 금 전통 민속문화 부활의 바람직한 축제행사로써라도 되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이 제창되었다. 그러나 한편 최근의 10대 20대 제주도 여성들은, 특히 고등학교라도 졸업하면 지금은 아예 해녀일을 하지 않는다.

그 피로움은 많고, 도민 전반의 생활은 향상된 때문이라 하겠다. 그래서 몇 십년 이내에 해녀사회의 소멸이 예상되고, 그러면 영등굿 형성의 큰 기반이 하나 소멸되니, 영등굿도 보존을 위한 문화재 지정은 됐지만 그 지속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만큼 지금은 사회변동이 각 측면에서 뿌리채 흔들리며 일어나는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이것도 그러한 한 예가 될 듯하다.

2. 한정된 지면이어서 제주도 무속의 기타자료들을 더 소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샤아마니즘 전반문제, 종교학의 측면, 또는 무용이나 음악의 매우 소박한 한 지방적 형태들도 보여줄 것이나, 이러한 민속예술면에는 필자의 눈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또 제주도 곳에는 주술종교적인 10여종의 연극형태를 취하는 대목들이 있고, 해녀들을 비롯한 정신착란증을 치료하는 곳들도 있어서 다양한 학술가치들을 지니지만 나 필자의 눈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끝으로 다시 신화, 문학적인 측면들만을 부연하고 정리하기로 하겠다.

3. 앞의 당신본풀이의 모티프들은 신화의 발생, 형성, 그리고 문헌신화에의 기록 정착의 양상들을 연구하는데에 귀중한 자료들이었다. 그래서 문헌신화들에 대한 이해의 유력한 시각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또 한편 특히 일반본풀이의 긴 이야기들은 아들 손자들에게 옛날이야기를 졸렸을 때 부인들이 들려주는 옛말로 전승되는 예들이 있어서, 제의장에서 사제자가 가창하면 신화인 것이, 옛날이야기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다는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기 했지만 이러한 일반신본풀이들의 中·日 講唱文學과의 관련성, 불교문학성, 이조소설이나 판소리들과의 관련성이 던져주는 문제는 거대한 문제이고 앞으로의 면밀한 연구의 진행이 기대된다.

4. 이러한 본풀이들을 전승시키는 곳판, 심방들의 암송능력등에도 더 면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곳판에서 필자는 73세의 노무와 22세의 어린 무녀가 같이 곳을 하는 것을 보았다. 크게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 연령간격은 51년, 半세기를 넘는다. 따라서 이 22세의 한 巫女의 생애는(72세 사망으로 가정해서) 100년의 口傳文學의 전승을 감당할 수 있는 셈이 된다. 4,5백년 정도의 구전문학의 전승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

게다가 그 암송능력이 대단하다. 한 40대 여십방은 3,4시간이 걸리는 장편인 세경본풀이를 딱 한번 듣고, 다음에는 자기가 굿에서 장고 반주로 그것을 불렀다는 말을 했다. 물론 개인차와 환경도 작용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는 일들이다.

이것을 멋지고 흥겨웁게 잘 부르면 청중은 도취된다. 그것은 굿의 효과를 올리는 결과도 되고, 심방 스스로는 인기를 얻고 더 잘 불려다니는 심방이 되게도 된다. 신화의 문예적 기능과 종교적 기능은 이렇게 밀접한 동일 국면을 여기서는 이루기도 한다. 이상 모든 실황은 口碑文學의 動態的 現場研究에 제주도 무속이 황금무대라는 것을 충분히 질감시키고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여기서는 관전의 한도 내에서 주관심사만을 언급했다. 제주도 연구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넓은 세계에서, 민속분야의 한 측면 연구의 경향, 성격, 성과들을 간추려서, 상호이해와 접근의 자료로 삼고자 한 바이었다.

참 고 문 헌

1. 徐丙高外 5人, “韓國의 糸狀虫症에 관한 疫學的 研究 1, 濟州島에 있어서의 糸狀虫症,” 寄生虫學雜誌 三卷三號, 서울, 1965, pp.67-72.
2. 張壽根, 韓國의 民間信仰, 論考篇, 東京, 1973.
3. 秦聖麒, 南國의 巫歌, 濟州, 1968.
4. 玄容駿, 濟州島堂神話考. 濟州, 1963.
5. 張壽根, “三姓始祖神話解釋의 한 試圖,” 국어국문학 22號, 1960, pp.65-70.
6. 玄容駿, “堂祭의 儒式化와 三姓神話,” 濟州道 14號, 1964.
7. 鄭 篤, 中國俗文學史 上下, 台北, 1968.
8. 村山修一, 神佛習合思潮, 東京, 1957.